대행선연구원
'세계의 비구니 승가: 현재와 미래' 국제학술대회
DAY 1

한마음선원 대행선연구원(연구실장 혜선)은 6월 17~18일 양일간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세계의 비구니 승가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묘공당 대행 선사 열반 10주기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15명의 국내외 비구니 스님과 석학들이 참여한 이날 학술대회에서 세계 각국 비구니 승가의 역사와 현황, 과제를 살펴보는 연구논문들이 발표됐다.

정리=신성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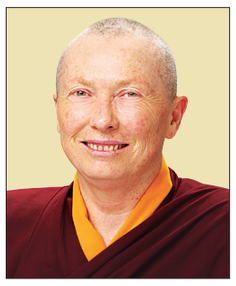


한마음선원 대행선연구원이 6월 17~18일 양일간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개최한 묘공당 대행 선사 열반 10주기 국제학술대회 모습. 참가자들이 학술대회 입재식서 삼귀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교단 성평등, 불교 가치에 부합돼"

까르마 렉쉐 쏘모 스님

'히말라야 불교 전통의 여성출가자'



"성균형이 이뤄진 사회의 불교도들은 더 이상 비구들이 비구니보다 우월하거나 비구에게 보시하는 것이 비구니에게 보시하는 것보다 더 공덕이 크다고 생각지 않는다. 수백 년동안 전 세계의 수백만 불교도들에게 공유됐던 남성편향적 오해는 논리적으로도, 부처님의 오랜 평등주의 가르침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前샤카디타인터내셔널 회장 까르마 렉쉐 쏘모 스님(샌디애고대 종교학과 교수)은 '히말라야 불교 전통의 여성출가자들'을 통해 티베트교단의 성 불평등과 그로 인한 비구니계 수계 문제에 대해 조명했다.

쏘모 스님에 따르면 티베트 중앙행정부의 종교문화부는 인도, 네팔, 부탄의 23개 사원에 총 4538명의 사미니 스님들이 주석하고 있다고 추산한다. 이는 현재 인도와 네팔에 망명 중인 1290명의 사미니 스님들까지 포함된 수치다.

티베트의 사미니 스님들은 비구승과 같은 옷을 입고 독신승으로 살아가지만, 비구니계를 받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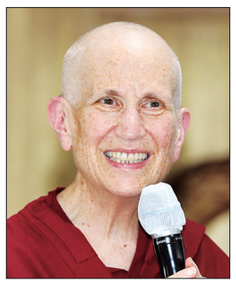
쏘모 스님은 티베트불교 비구니계 수계 방안으로 △비구니 없이 비구에게 수계 △한국 등 사분율 계맥에 속하는 비구와 비구니에게 수계 △〈근본설일체유부〉 율장 비구 10사와 사분율 계맥 비구니 10사가 주재하는 수계 △〈근본설일체유부〉 율장 비구 10사와 사분율 계맥을 받고 티베트 불교를 수행하는 비구니 10사가 주재하는 수계를 제시했다.

이어 "성평등을 위한 노력은 불교의 가치에 부합할 뿐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불교의 가르침을 유의미하게 만든다"면서 "전세계 여성들을 성차별의 족쇄에서 해방시키고 엄청난 잠재력을 발현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는 어떻게 티베트 비구니가 됐나

툽텐 쬐돈 스님

'서구 티베트불교 여성출가자들'



"서구에서 이전보다 더 많은 서구인 출가자 사원이 생겨나고 있다. 우리 자신의 공동체를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서구인 출가자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 가슴이 뜨겁다."

미국 쉬라바스티 애비 주지 툽텐 쬐돈 스님은 '서구 티베트불교 여성출가자들'에서 서구 사회에서 티베트불교 여성 출가자들의 역사와 그들이 어떤 활동을 펼치는지를 자신의 경험과 비교해 조명했다.

1950년에 태어난 쬐돈 스님은 1975년 LA 근교에서 라마 툽텐 예셰와 라마 조빠 린뽀체가 지도하던 명상코스에 참가했고, 이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화됐다. 스승들과 더 공부를 하기 위해 교직을 그만두고 네팔의 꼬빤 사원으로 갔고, 1977년 달라이라마의 원로 개인교사 용진 링 린뽀체로부터 사미니계를 받았다. 비구니계는 티베트에서 받을 수가 없어 1986년 대만에서 받았다.

쬐돈 스님보다 앞서 티베트불교로 귀의한 서구 여성 출가자들이 적지 않다. 티베트불교가 서구 사회에 알려질 수 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티베트 침략 때문이다. 수만 명의 티베트인들이 인도로 망명해 난민이 됐고, 이는 서구의 영적 구도자들과 티베트불교 스승들이 만나는 계기가 됐다.

쬐돈 스님은 "몇몇 서구 여성 출가자들은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사분율에 의거해 비구니를 받았다. 하지만 다른 비구니들과 함께 사원에 거주할 기회가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출가자로서의 혜택과 책임 등은 비구니 승가의 일상에서 일어난다. 이것이 티베트 전통의 비구니들에게 실현되길 기도한다"고 밝혔다.

한국 禪 배워 불교 가르침 美 전파

하주 스님

'불법 다시 처음부터 배웁니다'



미국 앤아버 선련사 주지 하주 스님은 한국의 삼우 스님 전강 제자로 한국불교를 미국에 알리고 있다.

하주 스님은 '모든 것이 부처: 불법을 다시 처음부터 배웁니다'를 통해 본인의 출가 생활 관련 일화와 활동상들을 소개했다

1978년 삼우 스님의 제자가 된 하주 스님은 두 명의 전강제자 중 한 명이다. 현재 앤아버 사원에 거주하며 한국 선불교 전통에서 유래한 북미 불교 교단인 자혜불교회를 이끌고 있다. 자혜불교회는 1967년 뉴욕 맨하튼의 삼우 스님이 거주한 아파트에 설립된 선련사가 그 시작이다.

하주 스님은 1985년부터 두 아이를 키우며 앤아버 선련사 관리자로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하주 스님은 "사찰 관리자가 되고 사찰에서 거주하는 것은 연중무휴로 일하는 것과 같다. 사찰에는 항상 할 일이 있었고 두 딸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라며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은 저희를 행복하게 했고, 사찰의 벅찬 소임에 대해 통찰력을 갖게 했다"고 술회했다.

44년간의 수행을 얻은 교훈도 소개했다. 하주 스님은 △많이 듣고 모여서 상의하기 △아이들은 승가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사람이 건물보다 중요 △음식 준비와 식사는 공동체 생활 정수 △침묵의 유익함 배우고 미디어를 끊어라 등을 강조했다.

미래를 위한 노력으로 하주 스님은 "자혜불교회는 한국 선의 풍요로운 전통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면서 "우리 출가 수행자, 교사들, 수련생들, 회원들을 여법하게 교육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 출가, 日불교 사상 가장 창의적 동력"

모니카 베테 소장

'日 비구니 사원의 과거와 현재'



가깝지만 먼 나라 일본의 비구니 역사를 조명하는 연구 논문이 발표됐다.

모니카 베테 교토 중세일본학연구소장은 '과거를 통해 미래를 보다: 일본 비구니 사원의 과거와 현재'를 통해 6세기부터 19세기 후반까지 일본 여성들이 출·재가자로서 어떻게 수행해왔는지를 살폈다.

베테 소장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을 통해 불교가 전래된 일본은 수계도 한국을 통해 받았다.

일본 역사상 최초로 수계를 받은 사람은 3명의 젊은 여성으로, 젠신·젠조·에겐은 587년 백제로 건너가 3년 후 계를 받았다. 이들은 590년 일본으로 돌아와 사찰을 창건했다.

헤이안 시대는 불교가 정치를 통제하는 것을 위험하게 보기 시작했다. 천태종과 진언종 등의 종파가 등장했지만, 이들 종파는 여성들이 함께 하는 것을 자신들의 수행을 모독하는 것을 봤다.

지도층 여성들도 보시, 불사 지원 등으로 사찰을 후원하는 데 그쳤다.

13세기에 이르러서 비구니 승가공동체가 다시 융성한다. 이 시기 여성들의 출가 이유는 영적 깨달음부터 경제적 이유, 가족으로부터의 해방까지 다양했다. 14~16세기 무로마치 시대는 정세가 불안했던 시기로 여성의 출가 연령이 어린 소녀까지 확대됐고, 특히 엘리트 계층에서 두드러졌다. 반대로 여성이 왜 열반할 수 없는지에 대한 교리가 일반 대중에 확산된 것은 이 시기부터다.

에도 시대에 이르러서는 비구니 사찰은 호적 등록 장소로 사용됐다. 비구니 사찰은 행정 시설이자 종교적 은둔처였고, 고통받는 여성의 안전한 피난처이기도 했다.

평등한 듯 불평등한 현대 일본불교

모니카 슈림프 교수

'근현대 일본의 수계 여성들'



메이지 유신은 일본의 근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됐다. 이는 일본불교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 지금까지 이뤄지고 있다. 근현대 일본불교의 수계 여성들의 면면을 살펴보는 논문이 발표됐다.

모니카 슈림프 독일 튀빙겐 대학 교수는 '근현대 일본의 수계 여성들'을 통해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불교에서 여성 출가자의 위치가 어떻게 변화되고 정착됐는지를 살폈다.

슈림프 교수에 따르면 1872년 국가대평의회는 남성 승려의 결혼, 육식, 음주, 장발을 합법화하는 조치를 단행했고, 1973년에는 니승(비구니)에게까지 확대됐다. 남성 승려의 결혼은 간단하게 허용됐지만, 니승이 결혼할 경우 재가 신분으로 돌아갈 것을 권했다.

슈림프 교수는 "이는 계를 받은 남성과 여성의 결혼에 대한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첫 번째 징후"라면서 "법령 발표 후에도 니승들이 결혼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후 일본불교에서 계를 받은 여성을 지칭하는 용어들도 새롭다. 여성교사(女性教師)는 모든 계를 완전히 받고 의식을 주재하는 지위를 의미한다. 여성승려(女性僧侶)는 1차 수계는 마쳤지만 아직 승려가 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여성도 포함된다.

슈림프 교수는 "모든 계를 받은 여성과 남성의 법적 지위는 평등하지만 여성은 종종 젠더로 인해 자신이 속한 종파나 주변 사회에서 다른 대우를 받는다"면서 "종교적 역할과 젠더 역할이 겹치면서 계를 받은 남성과 여성에게도 젠더적 고정관념이 작동해 대부분의 불교 종파들이 주장하는 법적인 성평등이 훼손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만불교 발전 중심에 비구니 있었다"

창쉔 스님

'대만 비구니 승가와 불교 부흥'



"현대 대만불교에서 비구니 승가의 놀라운 공헌과 업적은 중국은 물론 세계 불교 역사에서도 보기 드문 일이다."

대만 법고산 대학 강사이자 대만 국립대학 강사인 창쉔 스님은 '대만 비구니 승가와 불교 부흥'에서 대만불교 발전의 중심에 비구니 승가가 있었음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창쉔 스님에 따르면 대만에는 1만 5000명이나 되는 비구니 스님과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비구니 승가가 있다. 비구니 스님의 수가 비구 스님보다 3배가 많은 것도 불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대만불교의 부흥은 19세기 후반 중국 불교 근대화를 주도한 태허 스님에서 비롯된다. 태허 스님은 '인간 불교'라고 명명한 불교 개혁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여성 출가자들에게도 열린 자세로 문호를 개방했다. 남성 스승들은 비구니 교육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양성평등주의에 입각한 강원교육을 장려했다. 심지어 율장에 기술된 젠더 차별을 약화시켰으며 비구와 비구니 승가의 평등주의를 조성했다.

또한 전후 대만 경제가 성장하며 여성들의 교육 수준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고, 출가는 더 넓은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했다. 1980년과 1990년 초에 일어난 비구니 구족계의 거대한 물결은 이를 방증한다.

창쉔 스님은 "전후 대만에서 구현된 현대 중국불교 부흥 운동인 인간불교를 통해 비구니들이 불교계뿐만 아니라 세속사회에서도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면서 "인간불교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수행과 사회참여의 균형이 대만 비구니 승가의 숙제"라고 강조했다.